

“왜곡·편향 바로잡아 오월정신 제대로 계승해야죠”

기념식에 등장한 미래세대들이 되새기는 5·18 의미

유공자 후손 경과보고·4개 학교 학생 헌화·‘함께 있는 오월’ 영상 출연
“5·18피해자들 아픔 보듬고 그들이 남긴 민주화의 열망 이어나갈 것”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미래 세대 청년·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줬다.

5·18유공자의 후손인 2명의 대학생이 경과보고를 도맡았으며,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광주고 등 4개 학교 학생들이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오월 영령에게 헌화하고 참배했다. 또 기념공연에서는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함께 있는 오월’ 영상이 상영됐다.

이들은 기념식에 직접 참여해 5·18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그 정신을 계승할 미래 세대로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과보고를 맡은 임도열(28·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4년)씨는 기념식 이후 5·18 왜곡·편향을 끊어내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역할임을 실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씨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교도소 앞 고속도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인근 야산에 안장된 고(故) 임은택 열사의 손자다.

임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5·18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 5·18을 잘 몰랐다”면서도 “커가면서 5·18에 대한 왜곡·편향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왜곡된 정보로 부모님 세대는 물론 지금도 2차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했듯이, 앞으로는 우리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5·18정신”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생 대표로 헌화에 나선 학생들 또한 5·18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윤중(24) 전남대 학생회장은 “5·18 민주주의 역사가 모교 전남대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호국영령의 뜻을 미래 세대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우원씨처럼 가해자 측에서 진실된 사죄를 하기도 해 5·18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며 “5·18의 숭고한 뜻과 역사를 끊임없이 재조명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채동주(여·22) 조선대 홍보대사 회장은 “2년 전 5·18 관련 전시 디자이너로 활동한 적 있는데, 다양한 증언과 유품을 접하면서 5·18은 5월 18일 하루에만 다루기엔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눈을 반짝였다.

채씨는 “5·18정신은 대중정신으로 함께 대화하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윤 대통령이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하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기대를 품게 됐다”고 말했다.

박유경(여·22) 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은 “기존에는 5·18을 단순히 ‘기억해야 할 것’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들이 헌화하며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그 아픔이 절절히 느껴졌다”고 전했다.

박씨는 “오월정신이란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이 남긴 민주화의 열망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5·18정신이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돼 모두가 기억하는 5·18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고등학교 박성현(18)군은 “역사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느끼고 오월어머니들을 지켜보며 미래 세대로서 책임감이 느껴졌다”며 “열사들이 이룩한 5·18정신을 계승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박군은 “5·18이 남긴 민주 의식을 학생들이 이어

나가려면 민주화의 현장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5·18왜곡·편향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 진실을 알릴 새로운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념공연 영상에 등장한 김수인(16·능주고 1년)양은 “5·18정신은 광주시민이 모두 ‘민주주의’ 하나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몸이 된 성숙하고 강렬한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은 나주 매성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청소년 역사탐구 대회에 출전해 ‘나주의 5·18’을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하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양은 “당시 팀을 꾸려 우리지역 곳곳의 5·18 관련 유적지를 찾아가고 관련 뉴스를 정리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피흘려 지키고자 한 5·18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다.

김양은 “5·18정신이란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이웃 사랑, 광주 사람들을 위해 하나로 뭉쳐 죽을 때까지 불사한 숭고한 정신”이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요즘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정신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기 위해 협력과 연대의 마음을 갖고, 우리시대에 해결해야 할 목표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우원 “5·18 당일날 광주에 있어 믿기지 않아” 진보·보수 단체 100여명 구호·피켓 ‘맞붙집회’

기념식장 이모저모

◇전우원, 가해자 측 처음으로 기념식 참석=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전세 일가 중 최초로 5·18 기념식장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씨는 18일 오전 11시께 5·18 구묘역을 찾아 추모를 위해 마련된 상석에서 묵념한 뒤 5·18기념재단 관계자와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전씨는 추모 뒤 진행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가족의 만행이 너무 크다 보니 여기 올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여기 오면 저희 가족이 했던 죄의 크기가 훤히 보인다. 제가 지금 5·18 비극이 벌어졌던 당일날 광주에 있어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5·18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이라는 가치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참배객들도 북적=민주묘지를 찾은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인도에서 온 안치아(여·27)씨는 지난해 9월에 한국을 찾았다.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강좌를 배우고 있는 안치아씨는 올해 처음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처음 광주에 왔을 때만 해도 광주의 아픈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언어교육원에서 배운 광주 5·18은 아로새기지 않을 수 없는 역사였다. 안치아씨는 5·18을 기억하고자 이날 민주묘지를 찾았고, 말로만 듣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

낄 수 있어 이제서야 피부로 와 닿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줄리아(여·26)씨는 3년 전 나주를 시작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줄리아씨는 나주의 한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재직했던 당시 함께 일했던 이들이 5·18 경험담을 들려줬고 이때 처음 5·18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때부터 광주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매년 5월이면 민주묘지를 찾는다. “전남대 언어교육원 학사를 탄 뒤 광주에 정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민주묘지에 찾겠다”고 말했다.

힌츠페터상 초대 수상자인 벨라루스의 미하일 아르신스키(37)씨도 이날 묘지를 방문했다. 미하일씨는 “벨라루스도 폭정이 있어 80년 광주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벨라루스와 세계 평화에 5·18은 많은 귀감이 된다”며 “민주화를 위해 뛰어서 5월 영령이 자랑스럽다”고 웃어보였다.

◇올해도 반복되는 맞붙집회=올해도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문 앞 삼거리에는 진보와 보수 단체 100여명이 구호와 피켓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총발행동’ 2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광주 5·18순례단’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의 양심고백과 불법비자금 폭로를 응원하며 5·18학살 공범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외쳤다. 또 ‘윤석열퇴진을요구하는국민운동본부’는 정문 앞에서 4시간 가량 윤석열 퇴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을 소리치기도 했다.

보수단체 ‘타라이트’ 회원 10명은 오전 7시부터 민주묘지를 찾아 라이브 생중계와 함께 “5·18 국가유공자 선정 경위와 공적내용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정문 건너편 출구에서 “5·18 민주유공자 공개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지나가던 진보성향 당원들이 욕설을 하자 잠시 대립하기도 했다.

◇삼엄한 경비에 참배객 불편 호소=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호가 5공화국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하나같이 불만을 나타냈다. 대통령이 오느라 큰 철저한 경호가 필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친다는 것이다. 민주이문 맞은편 도로는 물론 반대편 관리사무소 쪽으로의 통행도 전면 차단돼, 민주이문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다.

무안에서 온 장혜원(여·27)씨는 “예전부터 5·18

추모식에 참석해왔지만 올해 민주이문 앞쪽 전체를 통제된 모습을 보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작년보다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임시로 만든 천막에서 시민들의 입장권을 확인하다보니, 좁은 통로에 긴 줄이 생기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 하기도 했다. /김단민 기자 kdi@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침단우리병원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